눈으로 보면 주술, 마음으로 보면 신앙

(역대상 14:1~17)

1.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2.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앎이었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눈으로 보면 주술, 마음으로 보면 신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눈으로 보면 주술, 마음으로 보면 신앙'
우리가 줄곧 반복해서 성전의 구성을 알아보며 지성소를 우리 마음에 적용하는 법을 배웠는데 역대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눈동자가 있는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 실패한 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법궤의 모양입니다. 인터넷에서 법궤의 모양이나 성전의 구성 모습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신앙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궤는 마음의 모양을 형상화 시킨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구분된 거룩한 부분이 바로 마음의 눈동자이기도 합니다.
법궤에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씀의 돌판이 있는데 이 돌판은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세상 것을 침 흘리며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담습니다. 이렇게 담는 모습을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다른 형태로 표현해보면 '마음으로 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의 시선으로 이 세상의 가치 중의 하나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럴 경우에 육체의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들은 마음으로 보는 것과의 연관성 안에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며 적용해 나가는 대상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마음의 지성소에 한 아가씨를 담고 바라보면 열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돈

이 들어오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직장에 가서 과장님께 과제를 부여받으면 그 일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마음의 지성소의 눈동자가 바라보는 애인과 연관되는 일이 됩니다. 이 일을 잘 끝내서 과장님께 핀잔을 듣지 않아야 애인과 만나서 영화도 보고 저녁도 먹을 수 있습니다. 즉 애인에게로 가기위한 과정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아가씨 대신에 돈이 들어있다면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승진해야 되고, 승진을 하려면 과장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맡겨진 과제를 잘 처리해야만 하는데 과제가 승진을 위한 과정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모든 대상에 대해서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3: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육체의 눈으로는 세상을 바라볼지라도 이것은 모두 십자가와의 연관성 안에서 판단되고 해석되고 적용이 됩니다.
내가 지금 과장님께 부여 받은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에 앞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은 돈이나 승진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가 복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생활화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의 지성소의 눈동자로 돈을 바라보는 사람이 육체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주술의 대상이 됩니다. ‘주술’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힘을 동원하는 기술입니다.
남미 축구 선수들이 시합을 하다가 골을 넣으면 목에 걸었던 십자가 펜던트에 키스를 하거나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시합 전에 성호를 긋기도 하는데 모두 주술적인 행동입니다.
십자가는 육체의 눈으로 볼 때에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십자가가 교회를 나타내는 표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이를 통해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는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는 동안에는 십자가는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 육체의 눈으로 보는 십자가는 주술이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은 것을 마음으로 바라보는 돈, 승진, 권력, 자식의 형통 등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소원을 발해도 괜찮은 칭의를 받은 것처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와는 상관이 없어졌으니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소원해도 된다는 오해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십자가는 눈으로 보면 주술이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복잡하고도 재미있습니다. 1절에 보면 지중해에 있었던 도시국가인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궁전을 건축하기 위한 인력과 자원을 보내옵니다. 이것은 사실 다윗의 통치 후반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지자 주변 국가들이 예를 갖추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건을 첫 번째 법궤 운반 실패와 두 번째 법궤 운반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3개월 밖에 안 되는 간격이 있었을 뿐인데, 그 동안 다윗이 궁전을 지었을 리도 없고 실제로 이것은 가장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을 앞당겨서 법궤 운반의 사건 사이에 끼워 넣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앞서서 이미 이야기 되었던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됩니다. 다윗의 궁전을 지은 이야기는 훨씬 뒤의 이야기인데 앞으로 끌어당겼고, 블레셋과의 두 차례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첫 번째 법궤 운반 사건보다도 앞선 사건이었는데 뒤로 미루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궁 건축은 앞으로 끌어서 얘기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은 뒤로 미루어서 두 번의 법궤 운반과정 사이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기록을 단순히 시대적 순서라고 생각한다면 쓰인 의도가 묵살되기 때문에, 연대기를 무시하면서까지 법궤 운반 사이에 이들 사건을 끼워 넣은 에스라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법궤 운반 사건이 실패하면서 법궤는 다시금 오벧에돔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굳이 다윗의 왕국이 강성해져서 이웃나라가 예를 갖추는 시대를 연결시킵니다. 또한 앞서 일어났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뒤로 미루어서 배치하였습니다.
다윗은 앞서 법궤를 옮기기 전에 앞장 13: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 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법궤는 여전히 오벧에돔의 집에 머물면서 방치되어 있었는데 다윗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 대해 하나님께 물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친절하고 소상하게 응답을 받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 전쟁에 대해서는 작전까지도 지시해 주십니다. 다윗은 법궤 앞에서 묻고 살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 오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법궤가 없어도 잘만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잘만 듣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 마치 법궤가 없어도 나라는 강성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응답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법궤를 성공

적으로 운반하게 되는데 굳이 이러한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법궤 운반 실패 때에 삼만 명이 기랏여아림에 모여서 법궤가 운반되는 모습을 보았지만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법궤에 손을 댄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에스라는 나중의 강성함을 방치된 상태에 연결시키고 이전에 있었던 전쟁의 성공을 방치된 상태에 연결시키면서 법궤를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랏여아림의 법궤를 옮겨오고자 한 것은 법궤를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 참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디까지나 주술적 차원에서 육체의 눈으로 법궤를 보고 있었습니다. 삼만 명이 법궤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마음의 지성소에서는 풍요와 다산을 바랐던 것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법궤를 보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풍요와 다산을 바라볼 때에, 법궤는 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풍요와 다산을 내 뜻대로 내가 소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주술의 한 수단이 되는데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자손이야기가 다윗 궁을 건축했다는 얘기와 나라가 높여졌다는 얘기 다음으로 끼어있는 이유도, 예루살렘에서 낳은 열세 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며 그 중에 솔로몬도 끼어있습니다. 에스라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를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법궤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법궤의 모양 그대로 마음에 오버랩 시키면 됩니다. 그럴 때에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마음의 지성소의 부분에 무엇이 담겨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진단해볼 수 있고, 하나님 이름 이외의 것이 담겨있으면 번제단으로 나가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법궤 안의 약속의 돌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뜻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생각하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의견이 있으신 인격적인 존재이시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말씀의 돌판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고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진정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근원으로 믿어지는 것들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고 마음의 눈동자로 바라봅니다. 그럴 때에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육체의 눈으로 법궤를 바라본다면 법궤는 주술의 방편이 되어버립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연대기적 구성을 하지 않고 법궤운반사건 사이에 역사적인 사실을 삽입한 것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을 과제로 삼지 않음에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나오고 예배에 참여할 때에 세상에서 조성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듣습니다. 그로 인해 십자가는 주술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똑같이 법궤는 방치되어 있었으나 사울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전쟁이 일어나자 사울의 마음의 지성소에 블레셋 군대가 들어와서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생명과 가족과 재산과 왕위와 나라를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들어왔기에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접촉점은 마음의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어도 대답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는데 그 당시에는 법궤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는 곧 하나님의 이름과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 법궤를 바라볼 때에만 그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내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을 때에도 승리를 바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기쁨과 만족이 되심을 믿고 밀착된 상태를 하나님께서 백허그 하셔서 승리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등 뒤로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며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을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대답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밀착 상태는 법궤의 모습을 내 마음에 오버랩할 때에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돈을 보고 있습니까? 자녀의 형통을 보고 있습니까? 건강이나 승진을 보고 있습니까? 법궤를 적용시켜 보아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번제단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과정이 십자가로 완성되어서 주어졌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으로 십자가를 볼 때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발사되는 과녁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내 눈을 카메라 삼아 과녁을 보고 계신 것이지 내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책망한 것처럼 가장 어리석은 일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안 보는 것입니다. 고전1장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십자가 안에 우주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 갈 때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발사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눈으로 아무리 십자가를 보아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십자가는 주술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주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건들에 둘러싸여서 사건의 핵심조차 헷갈리고 있지만, 외신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샤먼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화두로 삼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꼭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정통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은 일어나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세상을 보고 눈으로 십자가를 볼 때에 주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궤와 십자가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대상을 향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발사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마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고 최상의 은혜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